

『비전 21-만남, 그 소중한 시작』은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통일을 우리 모두의 문제로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만든 자료집입니다.

# 만남, 그 소중한 시작

2001 · 6 · 15



3836

U  
01-06-17  
민211  
UM00003836

2000년대

# 통일

우리는 원래 하나였어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모습을 하고

같은 조상을 섬기는 우린데

만나기만 하면 금방 친해질 우린데

백두산에서 한라산으로 날아다니는 새들만 부러워하고 있어요

북한 어린이들에게 편지를 띄울래요

서로 모여 즐겁게 놀자고

- 임승은 어린이가 지은 노래 <통일> 중에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Information Center  
On North Korea**

<http://unibook.unikorea.go.kr>

처음부터 하나였고, 하나의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역사를 안고 말과 문화와 모습마저 둘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다시 만난다면, 분단의 벽은 무너지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늘의 새들처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가 되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 표지 이야기

6·15 남북공동선언. 그것은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슴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햇살같은 것이었습니다.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서로의 손을 다시 맞잡았습니다. 우리가 마주잡은 손과 손엔 희망의 태양과 햇살의 따뜻함이 묻어나고, 해를 담은 환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만남은 우리에게 소중한 시작입니다.

〈표지일러스트 신상우〉

『비전21-만남, 그 소중한 시작』

발행일 / 2001년 6월 15일 · 발행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02-901-7102) · 주소 / 142-716 서울시 강북구 수유 6동 535-353 편집 및 디자인 / The Lee's Comm (02-3142-9088) · 인쇄 / 영풍문화사 (02-2256-5277)



## 글 실는 차례

- 02 하나로 여는 생각  
통일
- 04 권두칼럼  
다시 6월에
- 06 남과 북 2000-2001  
화보로 보는 6·15 남북공동선언 1년
- 08 통일을 생각한다  
대북정책, 장기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 10 청소년 권장 / 서서울정보산업고등학교를 찾아서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우리의 희망
- 12 역사 속으로  
태조 왕건의 통일 만들기
- 14 열린 인터뷰  
빵과 장미의 사회를 향하여
- 16 확대경  
북한의 IT산업, 어디까지 왔나?
- 18 만화  
이우일의 통일이야기
- 19 6·15 남북공동선언(전문)
- 함께 가면 보여요!
- 20 금강초롱

# 다시 6월에

글/강만길

역사적 남북공동선언이 있는 지 벌써 1년이 되었으니 제1차 정상회담에 수행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다름을 숨길 수 없다. 온 세상이 함께 축하하는 메이데이를 버리고 따로 근로자의 날을 정했던 것이 어제 일 같은데, 남북 노동자들이 금강산에서 함께 메이데이 축하행사를 벌였으니 6·15 남북공동선언의 성과가 얼마나 컸는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엄청난 변화가 왜 왔는가를 알려면 먼저 우리의 통일이 어떤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되었던 민족 사회 중 베트남이 먼저 전쟁통일을 했다. 그렇지만 전쟁통일이야 우리 민족 사회에서 먼저 기도되었다. 6·25 전쟁이 그것이다. 그러나 3년 간의 치열한 전쟁을 치렀지만, 민족 내전으로 시작되었다가 곧 국제전으로 바뀌면서 어느 쪽으로도 통일되지 않았다. 그 원인을 좀더 심도 있게 찾아보면 한반도가 가진 지정학적 조건이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시로서는 한반도가 사회주의권인 중국·소련 등 대륙 쪽에 치우치게 통일되는 것을 자본주의권인 미국·일본 등 해양세력이 용납할 수 없었고, 반대로 해양세력에 치우치는 통일을 대륙세력이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후 또 하나의 분단민족 독일이 흡수통일됨으로써 한반도에서도 흡수통일이 가능하리라는 전망이 한때 높았다. 그러나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았고 따라서 흡수통일도 되지 않았다. 동독과 북한이 다르고 서독과 남한이 다르며, 흡수통일될 때의 동독과 소련과의 관계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와는 다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때 특별수행원으로 가서 남북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공동선언에 합의했음을 발표하는 현장에서, 한반도에서는 전쟁통일도 흡수통일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남북 두 정상이 알게 된 결과 이제 '협상통일'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남북 주민 모두가 한반도에서는 전쟁통일도 흡수통일도 아닌 협상통일이 가능할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일이 중요하며, 협상통일은 반드시 평화정착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완전통일까지는 긴 시간을 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일 또한 중요하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있는 후 장관급 회담이 몇 차례 열리면서 철도를 연결하는 일, 공단을 만드는 일, 수방 대책을 세우는 일 등이 협의되었다. 제2차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리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일, 신뢰를 쌓기 위해 군사훈련을 서로 참관하는 일, 군대이동을 사전에 상대방에 알리는 일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군사력을 감축하고 그 예산을 한층 더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부분으로 돌리는 일 등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 부시정권이 들어선 후 북미관계가 약간 후퇴하고 그 때문에 남북관계도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 같이 말해지고 있다. 부시정권의 대북한정책이 확정되고 북미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남북관계도 순조롭게 풀려 가리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려간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통일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이고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축적되고 난 다음 비로소 본격적인 통일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랜 분단 상태에 너무 익숙해 왔기 때문에 6·15 남북공동선언 후 통일 문제가 너무 줄속하게 빨리 진전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해 하는 측면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철도를 잇고, 사람의 내왕이 많아지고, 경제협력이 좀 더 활발해진다 해서 그것이 곧 통일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협상통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앞 단계로서의 평화정착 과정에 들어선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최대 성과는 우리 통일방안이 협상통일 방법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게 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적 역사 경험에서 분단민족의 통일방법은 베트남식 전쟁통일과 독일식 흡수통일 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21세기적인 우리의 방법으로 협상통일을 실험하고 성공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 7천만 민족구성원 전체의 지혜와 의지와 인내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20세기적 역사 경험에서 분단민족의 통일방법은 베트남식 전쟁통일과 독일식 흡수통일 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21세기적인 우리의 방법으로 협상통일을 실험하고 성공시키려 하는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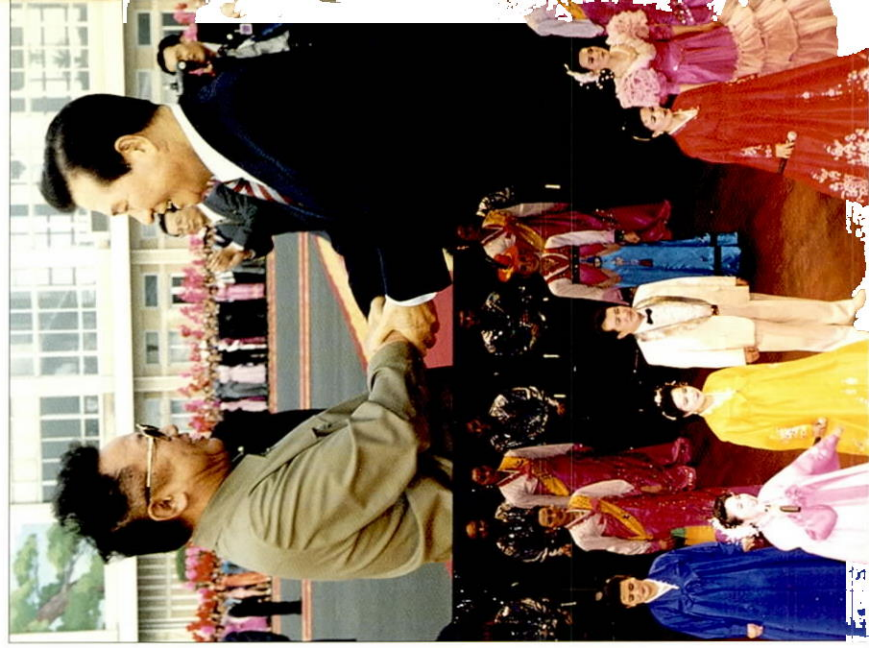
강만길 : 대통령 자문 통일고문회의 고문, 상지대학교 총장

## 화보로 보는 6·15 남북공동선언 1년

Welcome President Kim Dae-jur



- 2000. 3. 9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선언 발표
- 2000. 4. 10 남북정상회담 개최 공동 발표(서울/평양)
- 2000. 5. 24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방문 공연(~30)
- 2000. 5. 29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31)  
평양교예단 서울방문 공연(~6.10)
- 2000. 6. 13 남북정상회담(~15, 평양)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 2000. 6. 27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30, 금강산)
- 2000. 7. 29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31, 서울)
- 2000. 8. 5 언론사 사장단 방북(~12)
- 2000. 8. 15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18, 서울/평양)
- 2000. 8. 18 조선국립교향악단 서울방문 공연(~24)





- 2000. 8. 29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9.1, 평양)
- 2000. 9. 2 비전향 장기수 63명 판문점 통해 송환
- 2000. 9. 11 북한 김용순 특사 방문( ~14)
- 2000. 9. 15 남북 신수단, 시드니 올림픽 개최식 공동임장
- 2000. 9. 18 경의선 철도 · 도로 복원사업 기공식(임진각)
- 2000. 9. 20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23, 금강산)
- 2000. 9. 25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26, 제주도)
- 2000. 9. 27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30, 제주도)
- 2000. 10. 9 북한 조영록 특사 방미( ~12)
- 2000. 10.23 매들린 올برا이트 미 국무장관 방북( ~25)
- 2000. 11.30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12.2, 서울/평양)
- 2000. 12.12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16, 평양)
- 2000. 12.2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30, 평양)
- 2001. 1. 15**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 ~20)
- 2001. 1. 29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31, 금강산)
- 2001. 2. 21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24, 평양)
- 2001. 2. 26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28, 서울/평양)
- 2001. 3. 10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방북( ~14)
- 2001. 3. 15 분단사상 첫 이산가족 서신교환(판문점, 남북 각 300통)
- 2001. 3. 24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북측 조문단 서울방문
- 2001. 5. 2 페르손 EU 의장 방북( ~3)



#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제 주  
2000.9.25 ~ 26

## 대북정책, 장기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글/이성봉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과거의 대결과 반목의 악순환 구도로부터 공존과 협력의 선순환 구도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겨져 있다.

각론적으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대북정책은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우리가 우월한 힘을 바탕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킴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남북간 교류 및 협력사업을 통하여 북한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한편, 국제사회와 다면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유도해 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으며, 두 가지가 적절히 배합되어 구사될 때 그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수단 사이의 우선순위와 무게중심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물론 정책 환경과 사안의 성격에 따라 그 답은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포용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경험적으로 볼 때 북한에 대하여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점이다. 지난 1994년 북한의 핵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당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고립시키면서 힘으로 압박해 나갔고, 한반도에는 전쟁 일보직전까지 가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었다. 이 문제는 결국 제네바 합의를 통해 군사적 수단이 아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소되었지만, 이런 사례는 북한을 움직이는데 군사적 수단보다 경제적 수단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둘째, 비용이라는 면에서도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유효한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소위 채찍의 방법을 사용해서 북한을 압박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압력에 대해 북한 역시 강경 노선으로 대응한다면 이 정책의 성공 가능성도 크게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비용 또한 천문학적일 것이 될 것이다. 예컨대, 지난 1996년 강릉 해안의 잠수정 침투사건 당시 우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약 1,600억원 정도라고 한다. 반면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 온 현 정부가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총 규모는 1억 7천만 달러(약 2,100억원)에 불과하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북한과 평화와 공존의 관계를 모색해 갈 수 있다면 이는 다른 어떠한 수단보다도 효과적인 평화유지의 수단이 될 것이다.





셋째, 자칫 군사적 충돌로 치달을 수 있는 압박보다는 경제적으로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우리의 의도대로 발전시켜 가는 데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또한 의외의 장애를 맞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남북한이 상호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사실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경쟁은 남북한의 발전과 성장에 커다란 한계로 작용하여 왔다.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하여 남과 북 모두가 이기는 게임을 해 나가는 것은 미래의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비용을 덜어 나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다. 이런 점에서 강압과 대립보다는 포용과 협력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물론 북한에 대해 선의만 베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북한을 대한다 해도, 북한이 더 많은 실리를 얻기 위해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 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체제변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회피하면서 경제적 실리만 챙기고자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한 사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에 옮기며, 또한 그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상호 신뢰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일은 매우 힘들고 험난한 민족적 과업이다. 당장 눈앞에 통일이 다가온 듯이 보이다가도, 어느 새 난관에 부딪칠 수 있는 것이 남북관계이다.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인 분위기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인내를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통일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통일은 어렵기는 하지만 회피할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대결과 불신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어 나갈 단서를 마련한 것이다. 이 소중한 불씨를 살려 우리가 소망하는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얼마나 올바르게 읽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이성봉 :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강사

##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우리의 희망

글/장소영

서울 오류동에 자리 잡은 서울정보산업고등학교. 전국의 통일 교육 시범학교 중에서도 모범이 되는 학교이다. 교정을 들어서며 제일 먼저 마주친 것은 '우리는 하루 3번 통일을 생각한다' 라고 쓰여진 커다란 플래카드였다. 곧이어 취재진을 당황하게 만든 교내의 북도, 온통 통일과 평화, 북한 주민들의 얼굴을 환하게 담은 색색의 포스터들, '북한 바로알기'에 관한 상식과 북한 언어를 알리는 게시판, 통일에 대한 재미있는 퀴즈 등이 북도의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화장실-위생실', '노크-손기척'이라는 남북의 상이한 이름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교육을 위해선 교육 환경이 중요하듯이, 통일교육도 환경이 중요하지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취재진에게 이 학교 조동래 교장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다. "통일은 눈으로 배우는 교육이 먼저입니다. 고도의 이론보다는 쉽고 거부감 없이 다가가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죠. 저희 학교에서 '통일동산'을 조성하고 분단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전시하고 있는 것도 그런 뜻에서입니다."

그러자면 교사와 학생부터 부담없이 통일을 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생님은 '통일교육연구실'로 안내했다. 안에는 수백 점에 이르는 북한의 수석이 진열돼 있었고, 학생들 스스로 조금씩 동전을 모아 온 '북한학생 사랑나눔기 성금함'이 눈에 띄었다. 지난 45개월간 총 530여 만원을 모금했다니, 정말 기특한 정성이 아닐 수 없다. 그밖에 북한 청소년에게 보내는 우정의 편지들과 통일 스크랩북 등도 있었다. 약 40여 가지의 통일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이곳이야말로 통일에 대한 교육과 토론의 장이자 실천 마당이었다.

"세계도 변하고 남북관계도 변하는데 더 이상 종전과 같은 통일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6년 한반도 통일에 관한 런던 회의에 다녀오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통일교육을 고민하게 됐다는 교장 선생님. 이후 선생님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통일교육을 구상해 오셨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막바지 냉전기류가 채 가지지 않았던 지난 97년도. "그래도 아이들은 아이들에게요. 정치적인 견해나 주장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통일도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혹 아이들이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동포로서의 북한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주면 아이들 스스로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마음을 열어간다고 하신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일교육을 받은 서울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의 '통일 선호도'가 약 62.6%. 그렇지 않은 타 학교 학생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 졸업생 중 지난 해 통일연구반 부장을 맡았던 학생은 현재 '국제 옥수수 재단'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 장래 통일역군을 배출해 내는 산실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셈이다.

때마침 통일연구반 동아리 학생들과 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 기회를 얻었다.

"북한 잠수정이 떠내려 왔다는 신문 기사를 접하거나 하면 덜컥 겁이 나곤 했어요.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생기고요. 통일이 되면 일단 전쟁의 위협이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걱정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분단 상태로 있으면 무기를 사느라 계속 경쟁을 할 텐데, 그건 경제적으로도 서로에게 손실이죠. 그리고 땅도 좁잖아요. 남북을 합쳐도 별로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대로 가다간 언어나 문화의 차이가 너무 심해져서 같은 동포끼리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언젠가는 아무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통일을 해야죠." 놀랍게도 통일 동아리 학생들은 군축에서 평화협정에 이르는 사항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조목조목 지적해 냈다.

현재 전교 1,800명 중 총 200여 명의 학생들이 통일연구반 뿐만 아니라 통일사물반, 통일정보반 등 통일 관련 동아리에 소속돼 있는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들이라 활동이 활발하다고 한다. 이런 활동에 힘입어 다른 학교에선 대표 1인 밖에 참가하지 못하는 금강산 관광을 이 학교에선 4명이나 다녀올 수 있었다고 하면서 여간 자랑스러워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그러나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한 학생의 말. “북한 사람과 말이 조금 달라서 대화를 매끄럽게 나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곳 안내원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너희들 세대에까지 통일을 이야기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3시간 여에 걸친 이 날의 취재는 학생들의 적극적 협조 속에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다. 통일연구반 지도교사인 조희제 선생님은 제자들의 열성에 흠족해 하시면서도 빼있는 한마디를 잊지 않으셨다. “통일이 되면 나도 북한에 가서 교사를 할 수 있지. 하지만 내 나이가 벌써 쉰셋인데 언제 통일이 돼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니? 희망은 역시 너희들에게 걸려있는 거야. 너희들이 통일을 하고, 남과 북의 학생들에게 분단과 통일의 역사를 가르쳐줘야 돼.”

선생님의 아쉬움을 달래드리기 위해 통일교육에 관한 좋은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으로 말꼬리를 돌렸다. 기다렸다는 듯 시원한 대답이 이어졌다. 6월12일 6·15 1주년을 기념하는 학생·시민 한마음 통일박람회를 개최하고, 615개의 풍선날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계획이라는 것. 통일 희망찾기가 바야흐로 학교 울타리를 넘어 시민사회로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아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렇다. 정말로 이제 수사적인 차원이 아닌 실천적 측면에서 통일을 이야기 할 때이다. 이 아이들의 세대에서는 여하튼 분단의 역사에 중지부를 찍고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를 세워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6월의 푸른 교정을 나서는 뇌리에 해맑은 학생들의 모습과 통일의 미래가 눈부시게 흩어져 갔다.

장소영 : 자유기고가, 방송작가



글 > 김용선

# 태조 왕건의 통일만들기

왕건, 즉 고려 태조를 평가할 때 역사가들은 그가 통일을 한 것 이라기보다는 그를 중심으로 통일이 된 것 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신라와 후백제를 아우르며 통일을 이끌어낸 태조 왕건의 통일정책은 무엇이었을까? 또 경순왕과 견훤이 스스로 귀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상황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21세기 하나위 민족이 두 개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 태조 왕건의 통일만들기와 그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고려 태조 23년(940년) 12월, 지금의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의 한 산자락에서는 개태사(開泰寺)의 원공을 축하하는 법회가 열렸다. 이 낙성법회를 기념하기 위해 태조 왕건은 발원문을 직접 짓고 쓰면서, 절이 있는 뫼산의 이름도 천호(天護)라고 새로 붙였다. 천호(天護)와 개태(開泰) 하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태평성대가 열린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고려사』에는 이 절이 처음 지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4년 전인 태조 19년(936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후백제가 멸망하던 바로 그 해이다. 그 해 태조 19년 6월, 아들 신검에게 정권을 빼앗긴 후백제의 견훤이 고려 태조에게 귀부해 왔다. 결정적 승기를 잡은 태조는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후백제 근대의 싸웠는데, 9월에 이르러 황산군(黃山郡, 오늘의 논산시)의 마성(馬城)에서 신검 등을 사로잡고 후백제를 멸망시켰다. 이미 신라의 경순왕은 그 전 해 10월에 고려에 항복해 왔으므로, 고려는 이제 후삼국을 완전히 통일하는 위업을 이루게 되었다. 즉 개태사는 후삼국 통일을 이룬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위대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창건되었던 것이다. 신라의 경순왕과 최대 경쟁자였던 후백제의 견훤의 자발적인 귀부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후삼국 통일을 이루어낸 태조 왕건의 통일 정책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918년 6월, 궁예를 내쫓고 고려의 태조로 즉위한 왕건은 무력보다는 평화적인 입장에서 후삼국의 혼란을 수습하려 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면서 그들의 지지를 확고하게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일시적인 민심수습책이라기보다는 당시 농민이 가지고 있던 불만의 핵심을 적절하게 파악한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랜 기간 신라의 정복자적인 통치정책에 불만을 품어 온 백제와 고구려 출신의 옛 주민뿐 아니라 당시 혼란한 사회 속에서 경제적으로 몰락한 농민들을 포섭하고 회유하기 위한, 그야말로 통일을 위한 민심의 통합책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그 자신 송악(松嶽, 경기도 개성)의 토착세력가 출신이기도 했던 왕건은 같은 처지의 지방세력가인 호족들과도 무력적인 방법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결합하기 위해 힘썼다. 『고려사』에는 태조가 이들에게 '선물을 후하게 하고 말씨를 공손하게 하였다'고 적혀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들의 환심과 지지를 얻으려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밖에 태조는 호족출신 왕비를 맞아들이는 결혼정책과 자신의 왕세 성을 내려주는 사성(賜姓)정책 등을 통하여 호족과의 결합을 더욱 강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그는 고려라는 국호를 채택하여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천명하였고, 평양을 재건함으로써 통일의 명분과 주도권을 잡으려 하였다.

태조 왕건의 정책은 농민반란군의 대표자로서 국가를 세우고 왕이 된 견훤이나 궁예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궁예나 견훤은 정치력을 통한 평화적인 방법보다는 무력에 의한 통일을 구상하였다. 궁예가 신라에 대해 대단한 적개심을 가져 신라를 '멸도(滅都)'라고 부르며 신라에서 투항해 오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거나, 후백제 견훤이 신라의 수도를 직접 쳐들어와 왕을 죽이는 등 노략질을 하기도 한 사실이 그러한 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치 방법이나 통일 정책은 신라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많은 부담에 시달려오면서 불만을 품고 있던 대다수 농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주게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농민의 지지를 잃은 채 후삼국의 통일은 고사하고 정치적으로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라왕이 고려에 귀부해 온 것이나, 내분에 휘말린 후백제의 견훤이 고려의 태조에게로 탈출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사회의 주도세력인 호족과 대다수 농민들의 지지가 태조에게 쏠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태조 왕건이 '통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통일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는 통일 이후 과거제를 도입하여 지역적 차별 없이 인재를 발굴하면서 민족통합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라가 통일 후에도 골품제도에 근본을 둔 사회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던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발해가 망한 뒤에는 많은 유민들이 고려에 귀부하여 왔으며, 상당수의 중국 출신 귀화인들이 고려조정에서 활약한 사실도 고려의 개방정책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고려 왕실은 신라 왕족과 결혼하고, 그 혈통을 받은 인물이 고려의 왕이 됨으로써 신라의 정통성을 자연스럽게 승계하게 되었다. 신라의 왕족 뿐 아니라 일반 귀족들의 후예들에게도 그들이 신라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개방적이고도 자신감 넘치는 통합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렇듯 고려는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평화적 방법을 강조한 가운데 통일을 이루었으며, 과감한 개방정책을 통해 새로운 사회에 맞는 제도를 만들고 인물을 등용하였다. 또한 명분에만 집착하지 않고 실리도 충분히 챙기는 가운데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는데 성공하였다. 분단 반세기를 넘기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지금, 태조 왕건의 통일 만들기는 천년의 시차를 넘어 우리에게 절실한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역사의 교훈을 충분히 되새길 때에 제2의 천호산에서 제2의 개태사와 같은 통일의 성전을 마련할 날이 보다 빨리, 그리고 가슴 벅차게 다가오게 될 것이라 믿는다.

# 빵과 장미의 사회를 향하여

인터뷰/이(김)현숙·정리/김은하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적 질서가 해체되고 난 이후까지 '냉전의 고도'로 남아있던 한반도에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분위기가 싹트고 있다. 다가온 6월의 한낮, 한반도의 평화와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김)현숙 대표를 만나 여성과 통일의 함수관계는 무엇이며, 남과 북의 화합과 연대는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김은하** (이하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선생님이 상임대표로 계시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시지요. '평화'와 '여성'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구상이 함축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이(김)현숙** (이하 이)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모임은 1991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토론회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어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전 사회적으로 기아문제가 심각한 상태였고, 김일성주석 사망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되기 시작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나누기, 밥나누기 등의 사업을 통해 통일운동에 인도주의적 관점을 도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분단 상황의 종결이 필수적인 과제이며, 이는 전쟁과 같은 위협 속에서 최대의 피해자가 되는 부정적인 여성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김** 그동안 여성들은 사회적인 쟁점에 무관심한 것처럼 호도되어 왔고, 실제로도 현실정치에 개입할 만한 환경을 부여받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통일운동에서 여성이 갖는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매우 낮은 편인 듯합니다.

**이** 일상적으로 여성이 겪는 성차별이나 여성의 빈곤화 현상은 가부장적 군사주의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빵'과 '장미', 즉 생존의 안정과 복지가 동시에 구현되는 사회입니다. 통일된 사회가 여성의 안전한 삶을 담보한다는 점에 주목해 보면 여성이 통일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은 여성들에 대한 억압 상황을 개선하는 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사실 분단은 군사주의를 조장하고 군사주의는 가부장제와 결합하면서 여성의 종속상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사주의가 가져오는 타자에 대한 배타의식과 엄격한 성역할 구분 등을 생각해 보면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제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반한 통일논의 보다 인도주의에 의거한 통일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편적인 인간애를 지향하는 가운데 북한 동포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

**김** 6·15 남북공동선언은 여성들을 통일 운동의 주체로 이끌어 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남북공동선언의 의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계획 중인 사업이 있으신지요?

**이** 저는 6·15 남북공동선언이 분단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이산가족의 만남을 유도한 점 등 인도주의적 정치를 실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게 해 여성교류 확대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은 여성계가 활동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 UN 등 국제 기구나 국제 NGO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국내적으로 남북한 바로 알기 운동,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남북간 각종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저희가 추진 중인 사업들도 6·15 정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김** 그동안 많은 북한 여성을 만나보신 걸로 압니다. 북한 여성들은 과연 어떤 이들인지, 그리고 남북여성 간의 차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통일 후 동서독 여성들이 서로 간의 차이를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극심한 갈등을 겪은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도 있을 듯합니다만.

**이** 남한 여성들이 자기 성취욕구가 큰 데 비해, 북한 여성들은 체제의 특성상 스스로를 집단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큼니다. 또한 서구적 개념의 여성주의가 도입되지 않아서, 남한 여성만큼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북한에도 여성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 여성들의 만남이 잦아지고 깊어지는 가운데, 연대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여성이나 남성 모두, 북한에 대한 턱없는 우월감, 혹은 혐오감을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계몽주의는 북한사람들의 높은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자칫 북한을 내부 식민지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김** 앞으로 분단을 해소하기 위한 통일운동 과정에서 여성들이 어떤 인식과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또 남북의 여성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 이제 한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는 식의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반한 통일 논의보다 인도주의에 의거한 통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햇볕 정책이 말해 주듯이 통일시대에 대결과 배타의 구도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애를 지향하는 가운데 북한 동포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북한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방법을 모색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타서 말해 남북한 모든 개개인의 삶에 이익과 발전을 가져온다는 구도 하에서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분단은 여성의 빈곤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또한 전쟁 위협은 남북 구성원 모두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주목해 여성들은 통일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통일 이후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여성학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하며,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관해 남북 여성이 연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분명히 인식할 것은 타자에 대한 인정과 관용의 정신이 없다면 이 모든 일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 말씀을 듣다보니 저도 분단과 통일, 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이(김)현숙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김은하 : 문학평론가, 중앙대학교 강사

# 북한의 IT산업, 어디까지 왔나?

자료정리/통일부

그 동안 북한의 정보기술(IT : 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노동신문 등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IT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금년 들어 북한은 21세기를 정보산업시대로 등식화하면서 IT산업 육성을 경제 회복을 위한 '단반도약'의 중심고리로 집중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IT 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컴퓨터 교육, 인터넷 실태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의 IT산업은 1990년대까지 각 부문별 인프라 구축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치중되어 왔으나 2000년대부터 과학기술 중시사상을 앞세워 컴퓨터 산업 등 선진국의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하드웨어** 북한의 하드웨어 분야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외국에서 주요 부품을 수입하여 32비트 컴퓨터를 조립·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북한에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는 약 10만여 대의 16비트 및 32비트 컴퓨터로, 주로 국가기관, 공장기업소, 각 대학의 컴퓨터 관련학부, 각종 컴퓨터 연구·개발기관, 일부 고등중학교 등에 제한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 등지를 통해 고급 기종의 컴퓨터를 수입·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 북한의 하드웨어 부분이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은 나름대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남북정상회담 때에는 조선컴퓨터센터 측에서 노동신문을 음성으로 입력한 내용을 컴퓨터상에서 문서로 작성하는 음성인식 기술을 시연한 바 있다. 상용화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지만 받아쓰기 인식율이 90% 수준에 달하고 있고, 그밖에 지문감식기술도 국제발명품 전시회에서 금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용화가 가능한 상태에 있다.

북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조선컴퓨터센터 등 각종 연구·개발 기관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문자·음성인식 관련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바둑·장기 프로그램, '창덕', '단군' 등 워드프로세서, 문서처리 관련 프로그램 등 부문별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컴퓨터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점차 산업 각 부문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고, 일부 우수한 품목은 나이지리아, 예멘, 일본, 중국 등에 수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북한의 일부 소프트웨어가 비교적 익숙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컴퓨터 교육** 북한에서는 1998년부터 고등중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컴퓨터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컴퓨터 수재 양성반'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내용은 컴퓨터에 관한 기본지식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내용에 치중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 실습교육이 강화되어 선진 과학기술 소개 및 도입 필요성 제기 등에 관한 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컴퓨터에 관한 기술향상과 인재 발굴을 위해 각종 경연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회를 계기로 매년 컴퓨터 관련 기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이러한 대회를 통해 소개되는 것들이라고 한다.

**인터넷** 북한의 인터넷은 일종의 전산망으로 일부 기관에만 접속·활용되고 있으며, 국제통신망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최근 인터넷 광역전산망이

점차 확대되고는 있으나 컴퓨터 및 통신망의 미비, 일반주민의 접근통제, 컴퓨터 관련 기술부족 등으로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일반적으로 간단한 자료의 검색, 전자우편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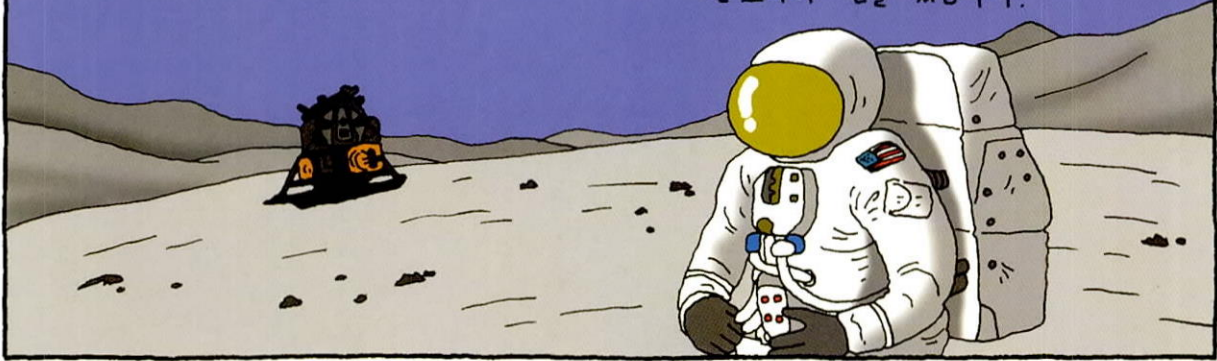
한편 북한에는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기관이 없고 다만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역할을 하면서 광역전산망에 연결된 기관들간에 각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인터넷처럼 접속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우리의 국가코드 kr처럼 공식적으로 등록된 인터넷 주소가 없는 상태이고, 결국 현재로서는 외부에서 북한의 인터넷망과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북한 내부에서는 중국, 일본과 연결된 국제전화선을 통한 다이얼업 방식을 사용하여 외국 인터넷과 접속하고 있다.

**남한과의 교류·협력** 앞서 북한의 정보산업을 간략히 소개했지만, 북한이 앞으로 정보화 부문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컴퓨터 보급, 인터넷, 통신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용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산업부문에서 선진 정보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기술 향상과 자본의 유치를 위해 남한과의 교류·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남북간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이 진전되어 우리의 하드웨어와 북한의 소프트웨어가 접목되면 쌍방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물론 남북간의 동질성 확보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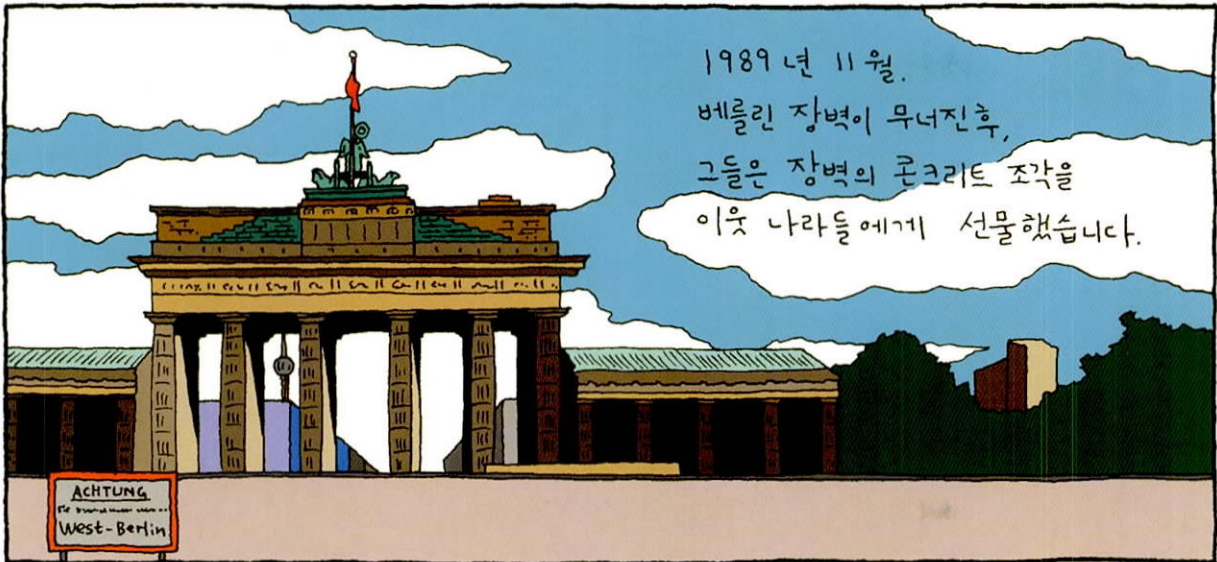
6·15 이후 남북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가면서 정보산업 분야에서의 교류·협력도 점차로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기업들이 북한과 접촉·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대부분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현 단계에서 남북한 정보기술의 상호 협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소프트웨어 분야이나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공동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통합비용의 절감과 민족 공동체 형성을 앞당겨 나가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 이우일의 통일 이야기

1969년 7월.  
아폴로 11호가 달에서 월석을 가져와  
각 나라의 정상들에게  
한 조각씩 선물 했습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그들은 장벽의 콘크리트 조각을  
이웃 나라들에게 선물했습니다.



21C에는  
마지막 남은 분단의 상징  
휴전선의 철망 조각을  
그들에게 선물 할수있길  
바랍니다.



# 6·15 남북공동선언(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국방위원장

김대중

김정일

## 함께 가면 보여요!

새 천년 벽두에 온 민족을 들뜬 기대 속에 몰아 넣었던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년이 되었다. 사실 6·15 남북공동선언은 그동안 우리가 통일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인식과 방법론에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선언은 북한·통일문제를 과거의 대립적이고 비관적인 각도가 아닌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정당하다는 것,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이 민족 성원 각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의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다. 그러한 자신과 신뢰는 남과 북이 함께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더욱 커져 갈 것이다.

가보지 않은 길, 갈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길을 찾아 가다보면 남과 북이 미처 알지 못했던 공존의 길이 보이지 않을까?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단순한 1+1보다 훨씬 큰 승수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런 영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실사구시적 자세가 절실한 때이다. 그러한 뜻에서 6·15는 하나의 완결된 매듭이 아닌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우리 앞에 서있는 것이다.

『비전 21-만남, 그 소중한 시작』을 내면서



## 금강초롱

금강초롱은 그 아름다운 자태로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초롱꽃과의 다년생 식물이다.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금강초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희귀종으로 그동안 환경오염 등으로 멸종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최근 DMZ 등지에서 발견되어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키는 약 30-70cm까지 자라고 8, 9월에 지름 2cm정도의 초롱 모양의 꽃을 피운다. 장소에 따라서는 흰색, 분홍색, 진보라색의 꽃을 피우기도 한다.

옛날 비로봉 아래에 살던 의좋은 오누이가 금강산에서 길을 잃은 길손들에게 불을 밝혀 주기 위해 금강산 곳곳에 이 금강초롱을 심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온다.

어둠을 밝히는 초롱불처럼  
마음을 싱싱하고 푸르게 만드는 금강초롱  
분단을 넘어 통일로 향하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곱게 곱게 밝혀주렴

